



국토교통부

보도 참고 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배포 일시	2023. 3. 4.(토)			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	송재영 (044-201-4617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	

정부는 수인분당선 열차 내 흉기 난동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은 2023년 3월 3일 17시 45분경 발생한 수인분당선 열차 내 흉기 난동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.

- 3월 3일(금) 17시 45분경, 분당선 전동열차에서 3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여객 3명(남1, 여2)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.
- 피의자는 사건 직후 죽전지구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, 밤늦게 철도경찰에 신병이 인도되었다.
- 철도경찰은 범행 경위, 동기 및 흉기 준비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 중에 있으며, 형법에 따라 특수상해*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(3. 4)할 예정이다.

* (형법 제258조의2 제1항)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.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열차 안에서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“열차 등 대중교통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는 무관용 원칙 아래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것” 이라고 강조하며,

- “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, 철도경찰 등의 순찰활동을 강화하고, 인력, 장비 등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볼 것” 을 지시했다.